

현안과 과제

■ 아세안(ASEAN) 시장이 떠 오른다!
- 한-ASEAN 교류 현황과 기회요인

1. 아세안(ASEAN¹⁾) 시장의 중요성

○ 아세안(ASEAN)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 인도를 이은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견실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 아세안 10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부터 2019년까지 평균 5.7%로 세계 경제 성장률 4.0%를 상회
- 아세안의 경제 성장률은 동기간 중국 7.6%, 인도 6.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평균적으로 5%이상의 성장세를 유지

- 아세안의 세계 경제적 위상도 점차 상승

- ASEAN 10개국의 GDP 규모는 1990년 3,425억 달러에서 2015년 2조 6,655억 달러로 약 8배 증가, 세계 GDP 대비 비중은 동기간 1.5%에서 3.3%로 증가
- ASEAN 10개국의 무역 규모는 1990년 3,066억 달러에서 2013년 2조 5,192억 달러로 약 8배 증가, 세계 무역 규모 대비 비중은 동기간 4.3%에서 6.7%로 증가

< 아세안10개국 경제 성장률 추이 >

(기간별 경제 성장률 평균,%)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4*.
 주 : 기간별 단순 평균이며, 아세안은 회원국 10개국의 단순평균임.

< 아세안의 경제적 위상 >

(십억달러)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4*, WTO.
 주 : GDP는 명목달러 기준.

1) ASEAN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의 약칭으로 회원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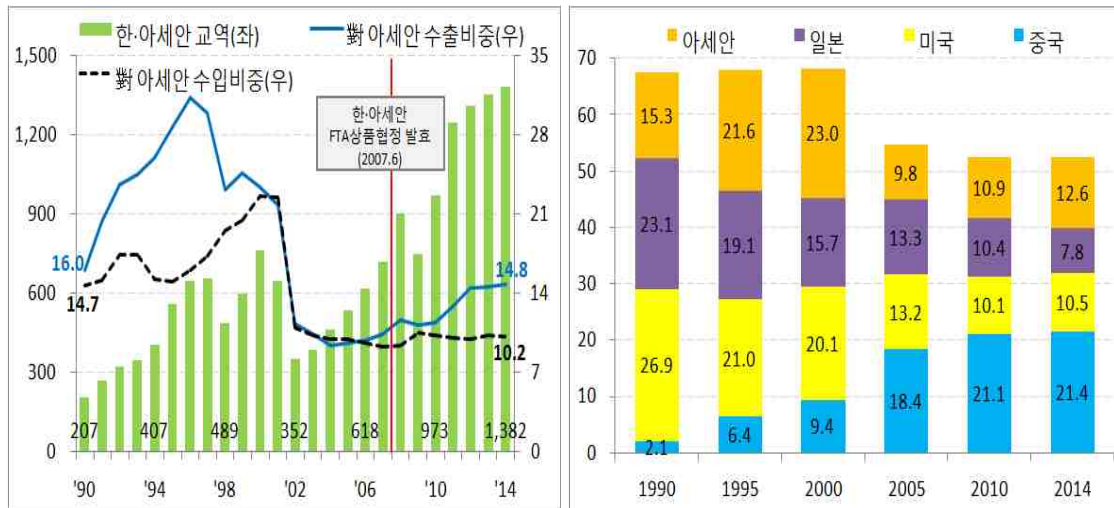
2. 한국과 아세안(ASEAN)의 관계

① 교역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對 아세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역 의존도가 회복세로 전환

- 지난 20여 년간 한·아세안 간 무역규모는 연평균 약 8.2%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
 - 1990~2013년 사이, 양국 간 무역규모는 207억 달러에서 2013년 1,382억 달러로, 연평균 8.2%의 속도로 규모로는 약 7배 증가
 - 동기간, 한국의 수출, 수입 총액 중 對 아세안 비중은 1990년의 16.0%, 14.7%에서 2013년 14.8%, 10.2%로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비중은 완만하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한국의 對 아세안 교역비중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1990~2013년 사이, 우리나라의 對 일본 교역비중은 23.1%에서 7.8%로 꾸준히 감소, 동기간 미국에 대한 교역비중도 26.9%에서 10.5%로 감소
 - 한편, 對 아세안 교역비중은 2005년 이후 10%대 회복, 2014년에는 12.6%를 기록

<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 추이 > (억 달러) <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교역비중 추이 >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2002년에는 한국의 對중국 교역이 전년대비 30.7%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이 감소, 따라서 수출/수입 비중도 대폭 감소하였음.

○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이 중심

- 한국의 對 아세안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석유제품 등으로 품목이 확대
 - 1990~2014년 사이 우리나라의 대ASEAN 반도체 수출금액은 7.1억 달러에서 117.1억 달러로 확대
 - 특히, 동기간 석유제품은 1990년 0.7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단일품목 기준으로 가장 많은 189.6억 달러로 증가

< 한국의 對ASEAN 상위 5대 수출품목 >

(단위 : 억 달러)

순위	1990년		2000년		2010년		2014년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1	반도체	7.1	반도체	59.7	석유제품	83.3	석유제품	189.6
2	철강판	3.3	석유제품	10.1	반도체	77.1	반도체	117.1
3	컴퓨터	2.6	전자관	7.6	선박해양 구조물,부품	41.8	선박해양 구조물,부품	62.7
4	인조장 섬유직물	2.6	무선통신기기	6.7	철강판	32.3	철강판	38.1
5	선박해양 구조물,부품	2.2	합성수지	6.3	합성수지	19.7	합성수지	27.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품목분류는 MTI 3단위 기준임.

- 한국의 對 아세안 주요 수입품목도 반도체와 석유제품 비중이 2014년 기준 14.8%(79.1억 달러), 8.2%(43.9억 달러)로 가장 큼

< 한국의 對ASEAN 상위 5대 수입품목 >

(단위 : 억 달러)

순위	1990년		2000년		2010년		2014년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1	석유제품	4.1	반도체	35.7	반도체	75.8	반도체	79.1
2	반도체	3.5	컴퓨터	28.1	석유제품	21.3	석유제품	43.9
3	기호식품	2.5	석유제품	11.9	컴퓨터	14.9	의류	34.1
4	컴퓨터	2.0	전자관	2.3	의류	7.3	컴퓨터	13.7
5	동제품	1.0	금,은,백금	2.0	무선통신기기	7.2	식물성물질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품목분류는 MTI 3단위 기준임.

② 투자

○ 한국의 對 아세안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업종도 재편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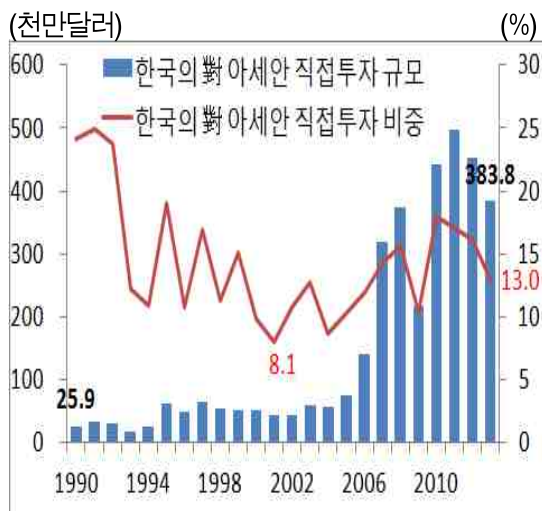
- 한국의 對 아세안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며,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로 전환

- 한국의 對 아세안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990년 2.6억 달러에서 38.4억 달러로 약 15배 증가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아세안 비중이 2001년 8.1%까지 감소했으나, 2013년에는 13.0%까지 회복

- 한국의 對 아세안 해외직접투자는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스 및 기타, 광업으로 업종이 다양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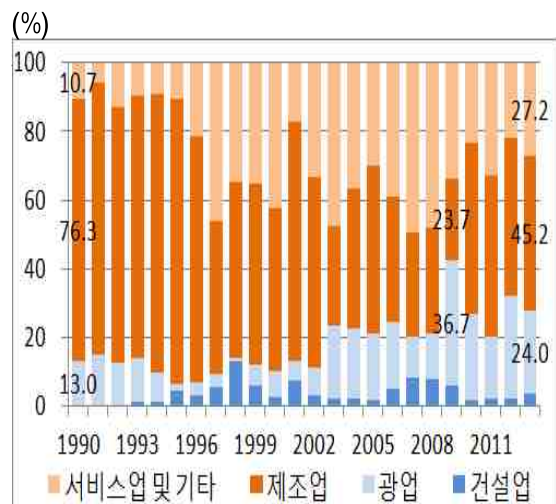
- 한국의 對 아세안의 제조업 투자 비중은 1990년 76.3%에서 2013년 45.2%로 31.1%p 축소
- 광업의 직접투자 비중은 동기간 13.0%에서 24.0%로 약 2배 증가
- 1990년대는 제조업 투자 비중이 약 65%를 상회하였으나 2000년 이후 서비스 및 기타, 광업 등 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재편되고 있음

< 한국의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 규모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의 업종별 對 아세안 해외직접투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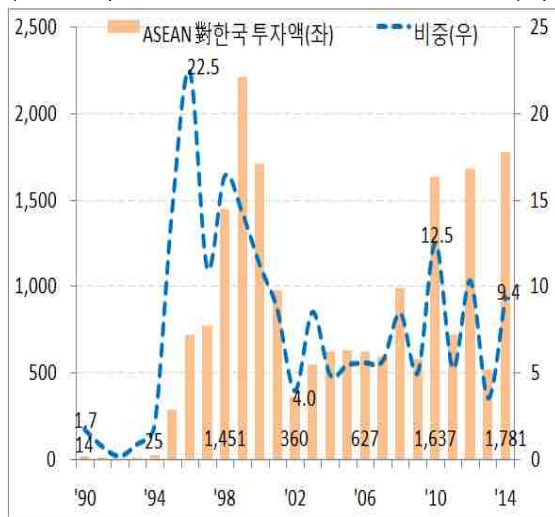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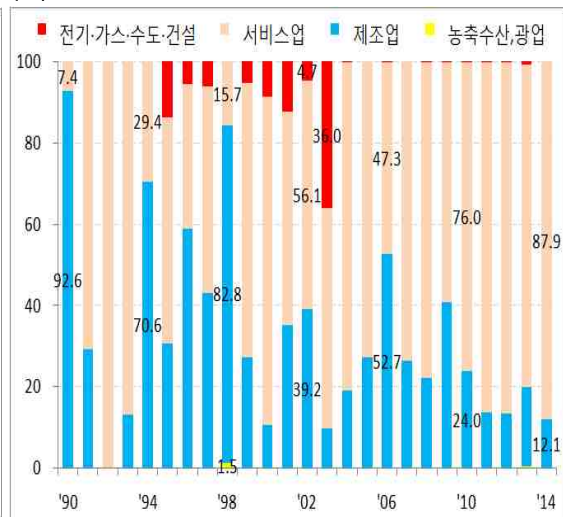
○ 아세안의 對한국 외국인투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아세안의 對한국 외국인투자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 규모의 10% 정도로 나타남
 - 1990~2014년 사이 아세안의 對 한국 외국인투자 규모는 연평균 22.5%의 빠른 속도로 증가
 - 투자 규모는 1999년 2,218억 달러를 정점으로 그 뒤 지속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급증과 급감을 반복
 - 2010년 이후 아세안의 對 한국 외국인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10%대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
 - 1990년 아세안의 對 한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투자가 전체 아세안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2.6%, 7.4%로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큼
 - 반면, 200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
 - 2014년 제조업 비중은 12.1% 감소, 서비스업비중은 87.9%로 대폭 증가

< 아세안의 對 한국 외국인투자 추이 >
(억 달러)



< 아세안의 업종별 對 한국 외국인투자 비중 >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비중은 한국전체 외국인투자 중 ASEAN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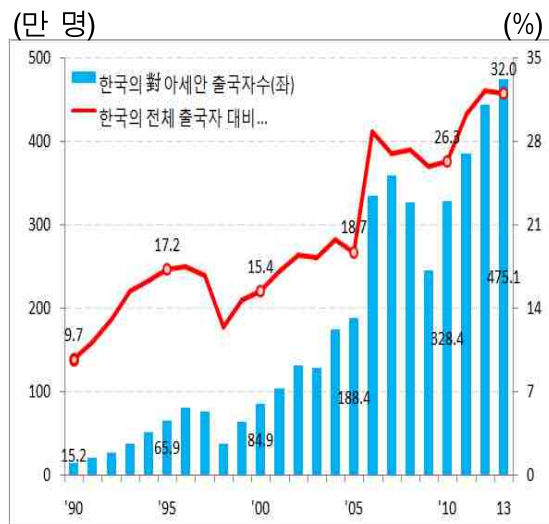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③ 인적교류

○ 2013년 한·아세안 양국간 인적교류 규모도 최근 급격히 확대

- 1990~2013년 사이 한국의 아세안 방문객수는 31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한국 전체 출국자중 아세안의 비율도 20%p이상 증가
 - 1990년 우리나라 對아세안 출국자는 15.2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출국자중 차지하는 비중은 9.7%로 나타남
 - 반면, 2013년 출국자는 1990년 대비 31.2배 증가한 475.1만 명으로, 전체 출국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0%로 확대됨
- 동기간, 아세안의 한국 입국자수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1990년 아세안의 한국 입국자수는 20.3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입국자수의 6.9% 차지
 - 반면, 2013년 입국자는 1990년 대비 7.6배 증가한 155.4만 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8%로 확대됨
- 이에 따라, 양국 간 인적교류 규모는 1990년 35.5만 명에서 연평균 13.2%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630.5만 명(1990년 대비 약 17배 증가) 기록

< 한국의 對 아세안 출국자 추이 >



자료 : 한국관광공사, 관광R&D센터.

< 아세안의 한국입국자 추이 >



자료 : 한국관광공사.

3. 아세안(ASEAN)시장의 기회 요인

○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 생산기지로 부상

- 아세안의 젊은 노동시장 구조

- 아세안의 인구수는 2010년 6.0억 명에서 2050년 7.9억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인구의 약 8.2%, 아시아 인구의 15.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인구 증가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수도 204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아세안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비중이 2010년 66.4%에서 2025년 68.2%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경쟁력

-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 대부분 임금 수준은 중국보다 낮음
-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공장근로자의 월임금은 각각 345달러, 344달러로 중국 466달러의 약 75% 내외 수준
- 캄보디아, 미얀마의 공장근로자 월임금은 각각 74달러, 53달러로 중국의 약 16%, 11% 수준에 불과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주 : ASEAN 회원국 10개국 전체 인구 기준.



자료 : JETRO, *The 23rd Survey of Investment Related Costs in Asia and Oceania, May, 2013*.
주 : 공장 근로자 기준.

○ 중산층 확대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

- 소득 수준 향상으로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

- 아세안 10개국의 1인당 GDP는 2009년~2019년까지 연평균 8%씩 증가할 전망
-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1인당 GDP는 동기간 연평균 약 10% 정도 증가하며, 아세안 국가 중 빠르게 성장
- 한편 말레이시아는 1인당 GDP는 2012년에 1만 달러대에 진입

- 아세안 중산층 확대에 따른 구매력 제고

- 아세안 중산층 규모는 2009년 8,000만 명에서 2030년 4억 9,900만 명으로 약 5.2배 증가
- 세계 중산층 규모 대비 아세안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4.4%에서 10.2%로 상승할 전망이며, 아시아 전체 중산층 대비 비중도 15%를 상회

< 아세안 국가의 1인당 GDP 현황과 전망 > < 아세안 7개국의 중산층 인구수 >

구분	2009	2014	2019	'09~'19 연평균
싱가포르	38.6	56.1	65.7	5.5
브루나이	28.2	42.2	44.4	4.6
말레이시아	7.2	11.1	16.2	8.4
태국	3.9	5.6	7.0	6.0
필리핀	1.9	2.9	4.7	9.8
인도네시아	2.3	3.4	4.6	7.1
베트남	1.2	2.1	2.9	9.6
라오스	0.9	1.7	2.5	10.8
미얀마	0.8	1.3	2.1	10.5
캄보디아	0.7	1.1	1.6	8.0



자료 : IMF,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4. 자료 : OECD, The Emerging Middle Class in Developing Countries by Homi Kharas, Jan, 2010.

주 : 자료 누락으로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는 제외.

○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프라 수요 증대

-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의 경제 인프라의 취약성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프라 개발 수요가 높음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아세안 국가의 인프라 경쟁력은 취약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의 전반적인 인프라 경쟁력은 수준은 144 개국 가운데 90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프라 수요 증가
 - 미얀마는 2030년까지 3,200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수요 발생
 -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2,350억 달러, 1,700억 달러, 1,05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예상

< 아세안 국별 인프라 경쟁력 수준 >			< 아세안 국별 인프라 수요 현황 >	
구 분	순위 (144개국 중)	점수 (7점 만점)	구 분	인프라 수요 규모 전망
브루나이	140	2.01	미얀마	3,200억 달러 (2030년까지)
캄보디아	107	3.05	태국	1,050억 달러 (2013년~2020년)
인도네시아	56	4.37	말레이시아	1,000억 달러 (2013년~2020년)
라오스	94	3.38	베트남	1,700억 달러 (2013년~2020년)
말레이시아	25	5.46	캄보디아	120~160억 달러 (2013년~2020년)
미얀마	137	2.05	필리핀	1,100억 달러 (2013년~2020년)
필리핀	91	3.49	인도네시아	2,350억 달러 (2013년~2020년)
싱가포르	2	6.54	싱가포르	157억 달러 (2014년)
태국	48	4.58		
베트남	81	3.74		

자료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4-2015. 자료 : KPMG, An overview of infrastructure opportunities in ASEAN.

주 : 인프라 경쟁력 교통인프라 6개 지표와 전기 및 통신 인프라 3개 지표로 구성. 주 : 1. 라오스와 브루나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생략.
2. 인프라는 교통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에너지 및 통신 인프라등이 포함.

○ 개발 잠재력이 큰 광물 자원

- 아세안 대부분 국가들은 다양한 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

- 인도네시아는 주석(세계 매장량 2위), 금 (세계 5위), 니켈 (세계 6위), 보크 사이트 (6위) 천연가스(세계의 1.6%)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보유
- 말레이시아는 이트륨 (세계 5위), 주석(세계 6위), 희토류 (세계 7위) 등을 보유
- 필리핀은 니켈, 셀레늄 등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 등을 풍부하게 보유

< 아세안 주요 국별 광물 자원 매장량 현황 (2013년 말 기준) >

구 분		매장량 (A)	세계 매장량 (B)	A/B(%)	(만 톤) 세계 순위
말레이시아	주석	25	470	5.3	6
	이트륨	1.3	54	2.4	5
	희토류	3	14,000	0.02	7
	토륨	0.45	140	0.3	7
	천연가스 (조 ^m)	1.1	185.7	0.6	-
	오일 (십억 배럴)	3.7	1,687.9	0.2	-
태국	주석	17	470	3.6	-
	석탄	123,900	89,153,100	0.1	-
베트남	보크 사이트 및 알루미늄	210,000	28,000,000	7.1	4
	티타늄	160	70,000	0.229	12
	석탄	15,000	89,153,100	0.16	-
	천연가스 (조 ^m)	0.6	185.7	0.3	-
	오일 (십억 배럴)	4.4	1,687.9	0.3	-
인도네시아	주석	80	470	17.0	2
	동	2,800	69,000	4.1	8
	금	0.3	5.4	5.6	5
	니켈	390	7,400	5.2	6
	보크사이트	100,000	2,800,000	3.6	6
	석탄	2,801,700	89,153,100	3.1	-
	천연가스(조 ^m)	2.9	185.7	1.6	-
	오일 (십억 배럴)	3.7	1,687.9	0.2	-
필리핀	니켈	110	7,400	1.48	12
	셀레늄	0.05	9.8	0.51	7
라오스	주석	11,290	-	-	-
	철(억톤)	10	-	-	-
	보크사이트 (억톤)	20	-	-	-
	암연 (억톤)	8511	-	-	-
	석고 (억톤)	120.18	-	-	-

자료 :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4, Atlas of Mineral Resources of the Escap Region Vol 7, David Jordt & Mathew Ma, "Potential of the Mining Industry In Lao P.D.R.", BP Statis Review of World Energy 2014.

○ 교통 및 물류망 연계로 역내 시너지 확대

- 아시아 횡단 철도(Trans Asian Railway) 연결을 통한 국제철도운송망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중임
 - 1992년 UNESCAP에서 '아시아 육상 교통 기반 시설 개발 계획(Asian Land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을 승인, 이에 기반하여 아시아 횡단 철도,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 등 물류망 구축 프로젝트 시행
 - 아세안 통과노선은 한국의 부산에서 출발하여, 북한,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를 지남

-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을 통해 한·중·일·러·인도 등 아시아 32개국을 연결하기 위한 55개 노선, 14만 km의 도로망 구축 프로젝트도 추진중
 -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AH 1)은 총연장 20,710 km로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 중에서 가장 긴 노선
 - AH 1은 일본의 동경을 출발점으로 하여 한국, 북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를 지나 터키와 불가리아의 국경선을 종착점으로 함

- 기존의 아시아 횡단 철도·아시안 하이웨이 등 아시아 물류망 연결 프로젝트와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간 시너지로 인해 국가간 접근성 제고 기대
 - 특히, 현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행을 위해 부산에서 한반도,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 사업을 강조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은 한반도중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를 기본 축으로 하여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사업이며, 철도뿐만이 아니라 해상, 도로, 항공이 결합된 다양한 국제수송회랑을 구축하자는 것임

< 아시아횡단철도(TAR) >



< 아시안 하이웨이(AH) >



자료 :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 경제상호주의 확산

-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진행됨에 따라 對 아세안 수출 확대 및 시장 점유율 제고가 기대됨
-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 1일 발효되었으나, 상품의 관세인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FTA 활용률이 저조
 - 한·아세안 FTA는 수입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출활용률은 타 FTA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최근 들어 관세 인하가 본격 시작되어 향후 수출 확대가 기대
 -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싱가포르 등 아세안 6개국은 일반품목군의 모든 품목에 대해 2012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베트남은 2018년까지,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는 2020년까지 일반품목군의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주요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 >

국가 (발효)	수출				수입			
	2011	2012	2013	2014. 1~9	2011	2012	2013	2014. 1~9
ASEAN (‘07. 6)	33.1	34.8	36.4	38.3	73.8	72.5	74.1	72.6
EFTA (‘06. 9)	-	84.9	80.3	81.2	55.7	61.9	41.8	41.0
EU (‘11. 7)	65.7	84.0	85.6	85.5	47.1	67.6	68.6	67.4
미국 (‘12. 3)	-	69.4	77.0	76.3	-	63.7	68.3	65.7
인도 (‘10. 1)	35.8	36.5	43.2	56.6	53.6	53.9	61.4	68.7
칠레 (‘04. 4)	-	75.4	78.9	80.7	95.8	97.9	98.5	97.6
페루 (‘11. 8)	61.3	77.8	91.9	89.7	52.6	92.0	97.9	89.3
터키 (‘13. 5)	-	-	69.4	71.7	-	-	69.4	64.2

자료 : 관세청.

주 : 1) FTA 수출입 활용률이란 특정 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 재화의 전체 수출입액 중 실제로 특혜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입액의 비율을 의미.

2) ASEAN의 수출활용률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수치임.

4. 시사점

- 최근 아세안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의 다양한 성장 잠재력과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함
 - 첫째, 아세안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장 공략 전략 수립을 통해 아세안 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됨
 - 저임금에 기반한 생산기지로만 활용하던 기존의 전략에서 벗어나 확대되는 내수 소비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 또한, 각국의 지리, 인종, 종교,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국의 차별화된 진출 전략이 필요
 - 소득 증가 이후 발생할 주요 수요부문의 변화를 심층 분석하여, 시장맞춤형 진출 전략의 수립이 필요
 - 둘째, 아세안과의 FTA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특정국 중심의 국제분업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벨류체인의 효율성을 증대
 - 글로벌 벨류체인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서 R&D 투자 등 지속적인 혁신기술 개발 및 확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 최근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등 동북아 분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아세안 시장을 적극 활용한 산업 고도화 추진 필요
 - 셋째, 아세안 인프라 시장의 경우, 그동안의 개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정부대 정부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인프라시장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등 자본조달 능력이 경쟁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공공부문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원활한 자본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넷째, 에너지 등 자원 부문은 국가 안정보장과 직결된 문제로 중장기 자원 개발·활용 전략을 수립, 자원개발투자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해야 됨
 - 정부, 민간, 공기업이 협력하여 에너지 기업 및 가스 & 오일전 인수와 함께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주개발 물량 확보하면서, 기존 중동중심의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다섯째, 교통, 물류의 경우 TSR~TCR~TKR 연결을 통한 복합물류망 구축을 통해, 역내 시너지 극대화를 꾀해야 함

정 민 선임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천 용 찬 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이 해 정 연구위원(2072- 6226, hjlee@hri.co.kr)